

전생 신드롬, 그 환상과 환멸 사이

전생소재의 책들 인기... 다양한 형태의 찬반론 낚아

한원균

문학평론가

돈 많은 애인을 둔 대학생, 휴학중인 그의 친구 이석. 어느날 선배의 소개로 작은 카페의 바텐더로 취직한 이석. 어느날 밤 영업을 마치고 문을 닫으려던 시각에 카페로 한 여인이 찾아온다. 술을 함께 마시고 그는 여자의 방으로 안내된다. 이석에게 처음이지만 완벽한 정사다. 그녀는 이석에게 배란다에 포인세티아 화분이 나와 있는 날은 와도 좋다고 말한다. 다음날부터 이석의 일과는 그 화분이 나오기를 기다리며 길 건너 창문만 올려다 보는 일. 하지만 화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좌절하는 이석. 화분은 골목길에 떨어져 깨지고 여자는 이사간다. 애인과 헤어진 친구, 이제 친구의 오피스텔에 혼자 남겨진 이석.....

최근에 발표된 박상우의 단편 <1942년 여름 포인세티아>라는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주인공 이석이 카페에 출근하면 으레 길 건너편 여자의 이층집 배란다를 바라보는 일이다. '포인세티아 화분'이 만들어내는 무한한 기다림, 환상만들기가 그것이다. 환멸스러운 삶 속에서 환상 만들기! 이 작품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작가의 명민함이 돋보이는 대목, 우리문화의 표정을 잘 짚고 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삶의 반영

전생의 기억을 되살리고 천년을 넘어서도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을 가진 책들이 많이 팔린다고 한다. 시내의 한 대형서점에서는 이같은 소재를 다룬 책을 모아 별도의 코너를 만들어 놓고 있다. 신경정신과 의사 김영우가 쓴 《김영우와 함께 하는 전생여행》이나 양귀자의 장편소설 《천년의 사랑》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고, 강제규 감독의 영화 <은행나무 침대>는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화제를 모았던 SBS의 드라마 <8월의 신부>도 전생에서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한 남녀가 정신과 의사의 도움으로 이승에서 옛 사랑의 기억을 되살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신승훈의 노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내가 있을 뿐>이나 롤라의 <천상유애>, 서지원의 <내 눈물 모아> 장혜진의 <완전한 사랑>, 최근 몇 주 동안 인기 순위

전생의 기억을 되살리고

천년을 넘어서 사랑이 이뤄지는

내용의 책들이 많이

팔린다고 한다. 이는 불안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삶의 반영이며,

도파적인 의식이 사회문제화할

가능성도 있다.

생의 발랄함이 전제되지 못한다면

환상은 곧 환멸로 뒤바뀌고

말 것이다.

수위를 지키고 있는 김민종의 <귀천도에> 뿐만 아니라 윤종신의 <환생>이나 여성화장품의 CF처럼 이같은 소재가 자주 등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불안심리가 증폭되고 있는 삶의 반영이며, 도파적인 의식이 사회문제화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반론과, 문학의 경우 '환상성'이 90년대 한국문학의 새로운 화두로 문학적 자장을 형성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찬반론을 낚고 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하고 수용할 것인가. 우리 문화의 성격과 문학출판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다음 몇 가지 시각을 제시해보자.

첫째, 구심적인 문화의 무게에서 벗어난 방향모색이라는 관점이다. 부도덕한 정권이나 권력의 억압적 성격이 예술적 상상력의 근간을 이루었던 시대로부터, 문화의 패러다임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중의 하나가 소재의 빈곤함을 극복하는 일이었다. 영화·대중가요·광고·문학 등 상업적인 성공을 비종있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문에서 '새로움'에 대한 갈망이 대중들의 기호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하면서 외형적 성공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제반 문화의 부분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다시 말해 소비계층의 차별성과 문화의 효용성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둘째, 당연하게도 상업주의의 전략 아래



서점가에는 '전생' 코너를 만들 정도로 전생 관련서들이 일종의 신드롬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소비재'는 확대 재생산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업주의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순진하거나 순수한 생각에 불과하다.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벌이는 '목숨을 건 투쟁'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재단할 수는 없다. 문제는 문화적 지표 혹은 방향성에 대해 되돌아보는 검토힘의 결핍에 있지 않을까. '모든 길은 루테 윌드로 통한다'고 말한 어느 문화비평가의 말은 너무 적실해서 오히려 우울하기까지 하다. '권위적인 해석 공동체'가 사라진 자리에 이를 대신할 '의사소통적 합의 메카니즘'이 등장하지 못했다는 사실 또한 비애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셋째, 최근 문화의 흐름을 설명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다양성'을 들고 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판단의 유보 혹은 함몰 상태를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화의 생산·유통·소비의 과정을 일관되게 지배하고 있는 일회적 소비욕망이 자기행위에 대한 반성을 근본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세탁기를 만들어서 '팔아야' 하는 것과 문화행위는 조금 달라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런 고전적인 생각이 자주 희화화되고 있음 역시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문맥에서 이는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 소설을 중심으로 나타난 출판상업주의가 그것이다. 다시 말해 개방화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문학도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데, 일단 많은 수의 독자를 확보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들

은 생각한다. 이는 한국문학의 출구 모색과 긴밀히 연결된다. 현실과 정치에 대한 강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운 문학을 통해, 외국 작가들에게 빼앗긴 독자들의 시선을 모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상업출판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논리 뒤에 숨은 출세욕구가 문학내적인 소통관계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의혹에 주목해야 한다. 상업적 출세주의를 은폐하고 있는 '세계주의' 논리는 철저하게 비판 돼야 한다.

생의 발랄함이 전제돼야

문화상품이란 유통과 소비를 전제로 한다. 어떤 상품도 현실경제체제 밖에서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문화가 주변과 공동체의 삶을 이해하는 가장 예민한 촉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삶의 수준을 드러내는 지표이자 구성원들의 입지를 말해주는 척도로서 작용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해야 하겠다. 합리적인 세계이해와 일탈욕망 사이를 오가는 자기모순과 괴리감을 관심있게 지켜보면서 토론을 유도하는 문화, 경직된 선입견을 거부하면서도 이질적인 담론에 대해 열린 문화환경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 따뜻한 사랑으로 충만된 삶을 회구하는 태도는 소중하다. 환상이 제거된 사회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환상을 유지하고 생의 발랄함으로 전회시키려는 진지한 노력이 전제되지 못한다면, 환상은 곧 환멸로 뒤바뀌고 말 것이다. ❖